

Research Center

한투의 아침

■ Today's Focus

1월 원자재 전망: 감산 효과 vs. 비수기 진입

■ 기업/산업분석

이녹스첨단소재, 항공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파라다이스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롯데제과 외 5개 종목

■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투자전략 | 박소연
해외주식 | 백찬규
글로벌기업 | 권윤구

시황분석 | 김대준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중국기업 | 이동연

계량분석 | 안혁
중국시장 | 최설화
해외채권 | 안재균

스몰캡전략 | 정훈석
베트남시장 | 이소연
경제분석 | 박정우

유동성분석 | 송승연
글로벌ETF | 배호진
채권분석 | 오창섭

자산배분전략 | 정현종
글로벌기업 | 정희석
크레딧분석 | 김기명

1월 원자재 전망: 감산 효과 vs. 비수기 진입

원유: 감산 효과 vs. 비수기에 진입

금: 상승세 지속 전망

비철금속: 여전히 강한 반등세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

원유 1월 전망: 감산 효과 vs. 비수기에 진입

OPEC의 유가 부양을 위한 노력에도 유가 반등세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른

OPEC은 유가 급락을 막기 위해 국가별 감산 할당량을 공개하겠다고 나섰으며 사우디는 추가 감산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이러한 OPEC의 노력과 최근 급락한 유가를 감안할 때 저가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일단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면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져있고 미국 증시 변동성 확대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못할 경우 유가의 반등세는 결국 제한적일 것이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감산 이행 효과

향후 석유 시장 관전 포인트는 OPEC과 비OPEC의 감산 이행에 따른 영향이다. 일단 OPEC과 비OPEC은 2019년 1월부터 120만 b/d 감산에 돌입한다. 이미 2017년 이후 감산 합의 당시 OPEC과 비OPEC의 감산 이행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감산 이행 여부에 대한 우려는 높지 않다.

다만 주목할 점은 러시아의 산유량이다. 러시아는 계단식으로 감산을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만약 러시아의 산유량이 크게 감소하지 못할 경우 다시 한 번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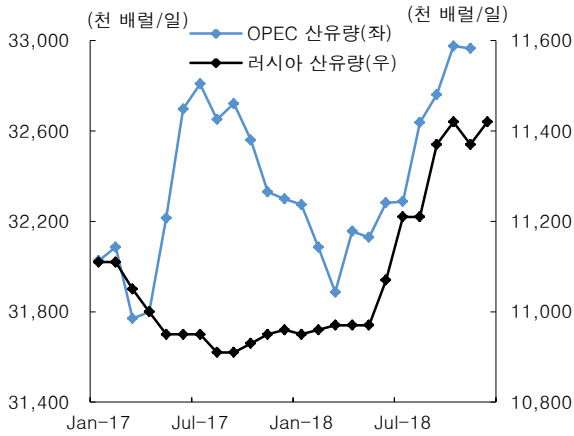
1월부터 비수기에 진입

그리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비수기가 시작된다. 4월부터 시작되는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미국 정유시설들이 정기보수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상 1분기에는 미국 원유 재고가 증가한다.

미국 원유 재고 향방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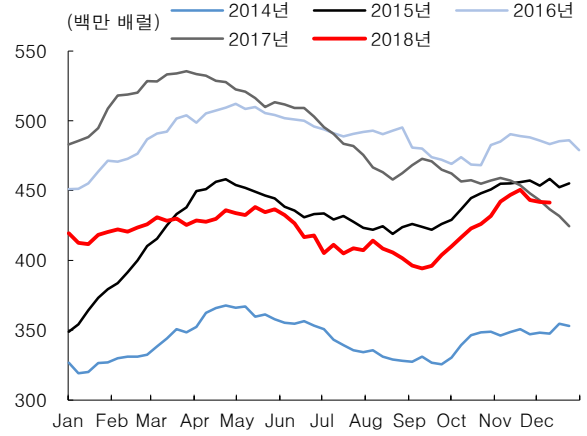
그러나 작년에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OPEC과 비OPEC의 양호한 감산 이행률과 미국 정유시설들의 평년보다 높은 가동률로 인해 미국 원유 재고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는 2018년 초 유가 상승을 견인했던 이유 중 하나였다. 본격적으로 비수기에 진입하는 가운데 미국 원유 재고 향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OPEC과 러시아 산유량



자료: OPEC,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미국 원유 재고 추이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금 1월 전망: 상승세 지속 전망

금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

금 가격의 상승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일단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섣다운에 따른 여파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종착역에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긴축 속도는 조금씩 느려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듯 금 ETF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좀처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11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등의 경제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자동차 판매는 약 7년 만에 가장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 게다가 유로존 역시 11월 제조업 PMI가 27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결국 증시 급락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선호도 약화는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도 강화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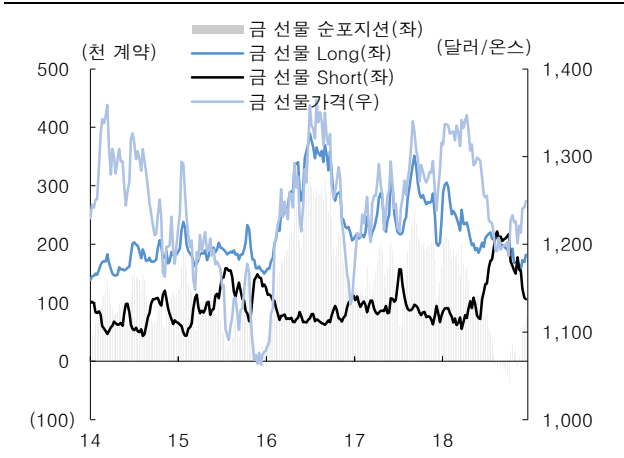
미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역시 금 가격에 우호적

게다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역시 금 가격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주는 요인 중 하나다. 금리 인상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하는 가운데 10년물 미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달러 강세 역시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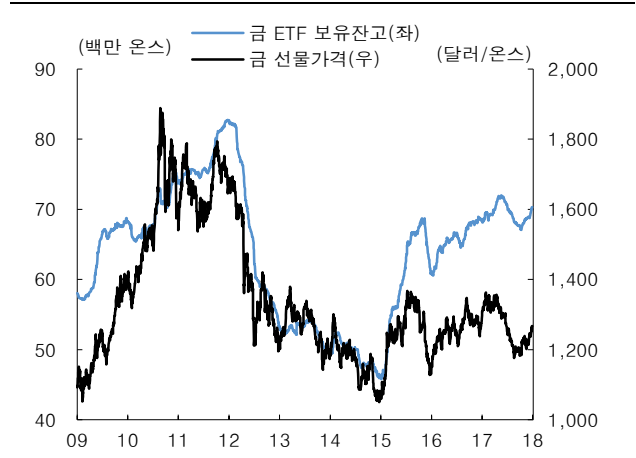
이는 결국 금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금 ETF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11거래일 연속 금 ETF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4월 중순 이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자금 유입세가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역시 7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림 3] 금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자료: FRB, 한국투자증권

[그림 4] 금 가격과 금 ETF 자금흐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비철금속 1월 전망: 여전히 강한 반등세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

1) 전기동

중국 경제지표 둔화로
비철금속의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들

여전히 비철금속의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전 세계 비철금속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지표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8.1%에 머무르면서 15년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산업생산 증가율 역시 5.4%로 약 3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 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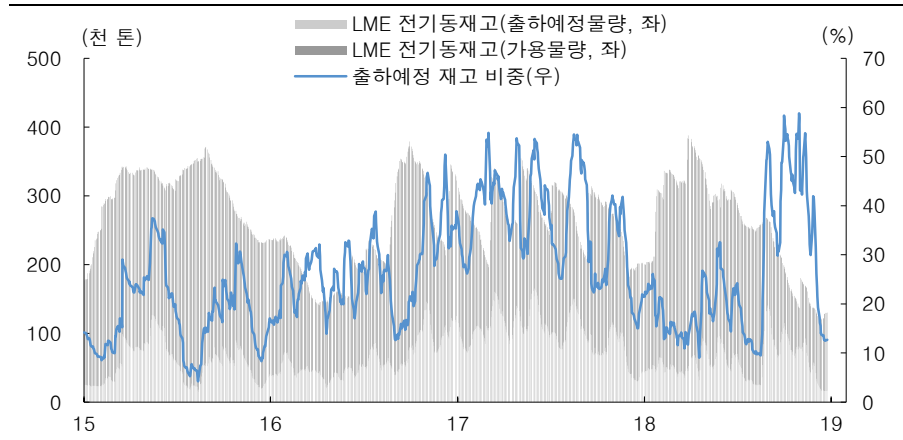
다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비철금속 가격의 추가 하락
리스크를 낮출 것

게다가 기대를 모았던 중국 경제공작회의에서 미중 무역분쟁 해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경기 안정화에 방점을 둔 것으로 알려진 점 역시 실망감으로 이어졌다. 다만 중국 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을 인지한 가운데 구조조정보다 성장 친화적인 정책방향이 주를 이룬 점은 비철금속 가격의 추가 하락 리스크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전기동 역시 강한 반등은
힘들

이를 감안할 때 전기동 가격의 강한 반등세를 기대하기는 아직 힘들 것으로 보인다. 비록 12월 중순까지 LME 재고는 감소세를 보이면서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on-warrant 재고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10월 말보다 두 배나 늘어났다.

[그림 5] LME 전기동 재고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2) 알루미늄

알루미늄 가격의 반등세는 제한적일 전망

최근 알루미늄 가격이 16개월래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중국 알루미늄 생산자들의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이들은 약 80만톤의 생산설비를 폐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가격의 반등세는 여전히 제한적일 전망이다.

11월 중국 알루미늄 생산량은 증가

알루미늄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11월 중국 알루미늄 생산량은 282만톤을 기록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0% 증가했으며 전월대비 4% 증가했다. 4개월만에 다시 생산량이 증가한 것이다.

미국의 루살 제재 해제 역시 수급에 부담

게다가 미국의 루살 제재 해제 역시 알루미늄 공급 확대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지난 4월 미국은 러시아의 알루미늄 생산 기업인 루살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알루미늄 가격은 급등했었다. 제재 해제로 루살은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 알루미늄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알루미늄 가격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3) 니켈

인도네시아 정부의 니켈 정광 수출 허가로 인한 공급 확대 우려

니켈 가격이 다시 한번 톤당 11,000달러선을 하회했다. 좀처럼 매크로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 확대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PT Surya Saga, PT Modern Cahaya Makmur, PT Intergra Mining 3곳의 회사들에게 니켈 정광 수출을 금지 시켰지만 PT Modern은 조건을 충족하여 다시 수출을 재개했다.

게다가 BHP의 호주 니켈 광산 개발 허가 등으로 글로벌 광산 업체들의 투자 소식이 니켈 가격에 다시 한 번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다. 이를 감안할 때 니켈 가격 역시 반등세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녹스첨단소재(272290)

4Q18 Preview : 반등 모멘텀 모색 중

영업이익 104억원으로 전분기와 유사할 전망

4분기 매출액 769억원, 영업이익 104억원으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예상한다. 스마트폰과 TV수요의 전반적인 부진에도 국내 고객사들의 OLED 라인 가동률은 양호했고, 삼성전자 갤럭시S10 FPCB 소재와 복합방열시트 매출액이 일부 선반영되기 때문이다. 마진이 좋은 애플 아이폰향 OLED 소재 출하가 4분기에도 큰 변화없이 계속됐고 전년동기에 발생했던 제품 관련 일회성 비용(4Q17 판관비 158억원 vs. 4Q18F 판관비 104억원)이 올해는 없어 영업이익률은 전분기와 비슷한 13.5%를 예상한다. 1Q19부터는 갤럭시S10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해당 모델에 OLED 소재 공급도 시작한다면 단기 실적 개선 모멘텀도 예상된다.

OLED 확대와 삼성전자 스마트폰 신모델 효과가 기다려진다

2019년에 스마트폰 업체들의 OLED 패널 채용이 확대되고 LG디스플레이 광저우 OLED TV패널 라인도 가동하면서 OLED 소재 매출액은 1,250억원(+33%)으로 또 한번 성장할 전망이다. 애플 아이폰의 OLED 비중 확대도 삼성디스플레이의 가동률 상승을 이끌 것이다. 이로써 OLED향 매출액 비중은 3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OLED 소재는 스마트폰용 소재(INNOFLEX+SMARTFLEX) 대비 마진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스마트폰 수요 둔화로 2019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갤럭시S9 부진의 기저효과가 있어 스마트폰 관련 소재 매출은 실제로는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추가적으로 폴더블 스마트폰은 시장 확대 기대감과 함께 실적 업사이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중 계속될 모멘텀. 목표주가 76,000원 유지

이녹스첨단소재에 대해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76,000원을 유지한다. 지금 주가는 IT업체들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하락(이녹스첨단소재 2019F PER 9배)과 스마트폰 시장 수요 둔화, OLED 성장에 대한 의구심 등 모든 악재가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 1분기 갤럭시S10, 2분기 폴더블 스마트폰 공개, 3분기 OLED TV 확대, 4분기 애플 아이폰의 OLED 채용 증가까지 모멘텀이 차례대로 기다리고 있어 반등을 모색할만한 주가와 타이밍으로 본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6A	-	-	-	-	-	-	-	-	-	-	-
2017A	193	22	17	1,947	NM	28	43.9	27.9	6.1	13.8	0.0
2018F	293	37	31	3,462	77.8	45	10.6	8.5	2.2	21.9	0.0
2019F	336	42	35	3,895	12.5	51	9.4	7.1	1.8	20.2	0.0
2020F	353	42	35	3,768	(3.3)	55	9.7	6.7	1.6	16.7	0.0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매수(유지)

목표주가: 76,000원(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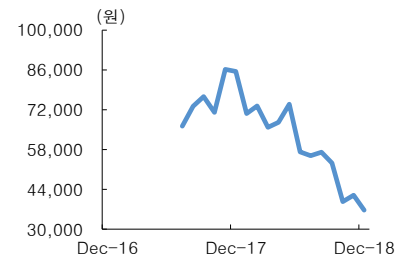
Stock Data

KOSPI(12/26)	2,028
주가(12/26)	36,700
시가총액(십억원)	329
발행주식수(백만)	9
52주 최고/최저가(원)	86,400/36,700
일평균거래대금(6개월, 백만원)	3,951
유동주식비율/외국인지분율(%)	64.0/10.3
주요주주(%)	이녹스 외 5인 33.7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0.8)	(38.4)	(57.0)
KOSDAQ 대비(%p)	(6.6)	(18.5)	(44.3)

주가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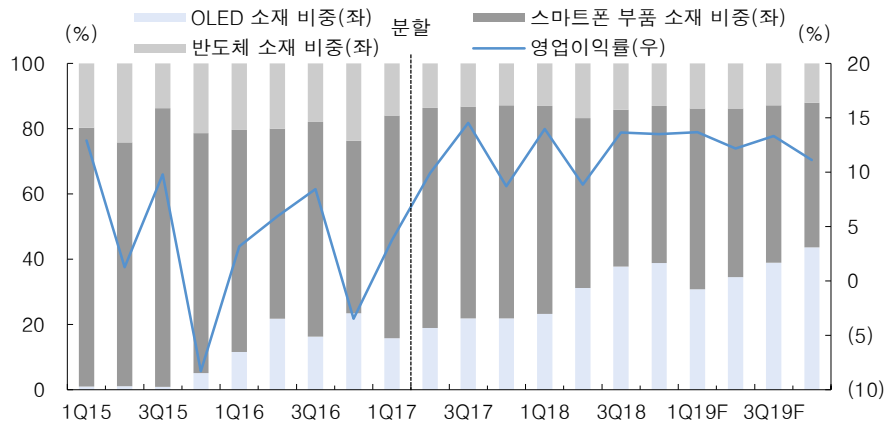


자료: FnGuide

김정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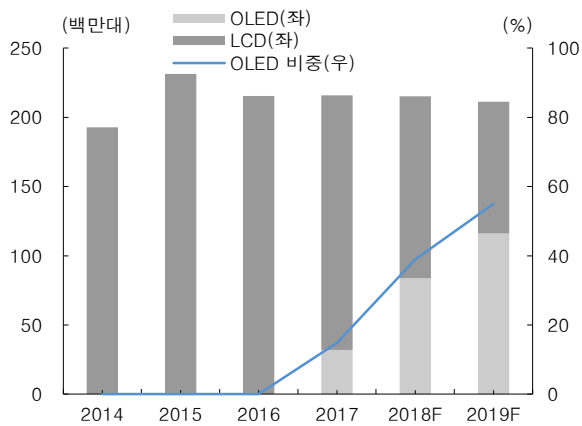
junghwan.kim@truefriend.com

[그림 1] OLED향 소재 상승 뚜렷해져 영업이익률도 안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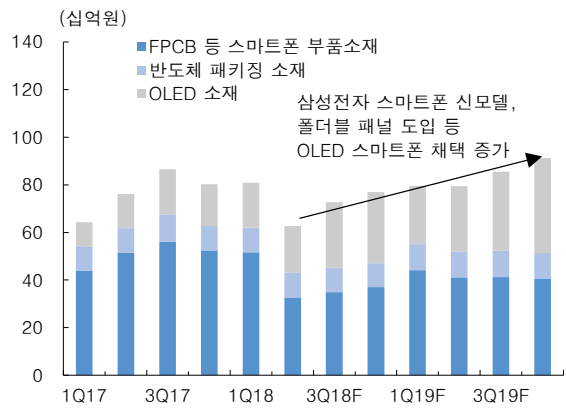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애플 아이폰 OLED 비중 2019년에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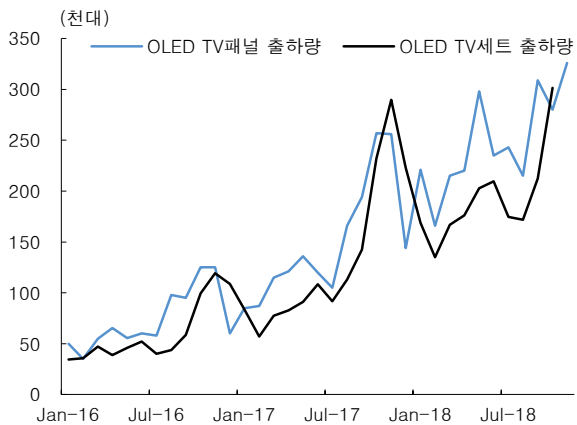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스마트폰 신모델 효과+OLED 채택 증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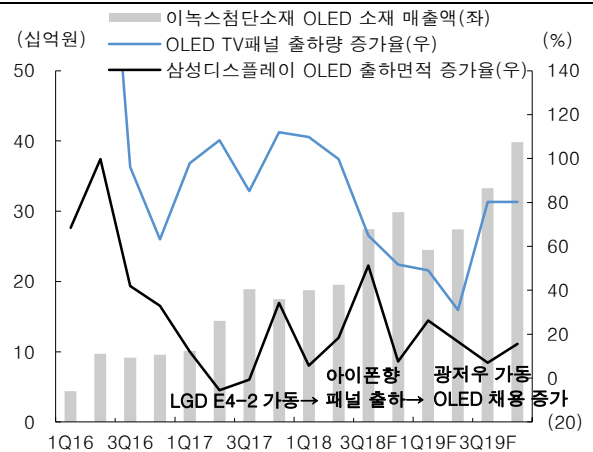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성수기인 11월까지 대형 OLED 패널 수요 견조



주: 패널은 2018년 11월, 세트는 10월 출하량까지 포함
자료: IHS, 한국투자증권

[그림 5] 중소형 OLED 견조, 대형 OLED는 크게 증가



자료: 한국투자증권

〈표 1〉 분기 및 연간 실적 추정

(단위: 십억원, %)

	1Q18	2Q18	3Q18	4Q18F	1Q19F	2Q19F	3Q19F	4Q19F	2016	2017	2018F	2019F
매출액 (분할 전 매출액 포함)	80.9	62.7	72.7	76.9	79.6	79.5	85.5	91.2	180.0	307.1	293.2	335.9
INNOFLEX(FPCB 소재)	18.6	17.8	24.8	21.8	21.5	20.4	25.9	24.2	63.6	106.7	83.1	92.0
SMARTFLEX(스마트폰 소재)	33.0	14.8	10.1	15.2	22.6	20.7	15.3	16.2	47.0	97.0	73.1	74.8
INNOSEM(반도체 PKG 소재)	10.5	10.5	10.3	10.0	11.0	11.0	11.0	11.0	36.5	42.5	41.3	47.1
INNOLED(OLED 소재)	18.8	19.5	27.4	29.9	24.5	27.4	33.3	39.8	32.9	60.9	93.9	125.0
이녹스첨단소재 매출 비중(%)												
스마트폰 소재/부품	63.8	52.1	48.1	48.1	55.4	51.7	48.3	44.3	61.5	66.3	53.3	49.7
반도체PKG 소재	13.0	16.7	14.2	13.0	13.8	13.8	12.9	12.1	20.3	13.8	14.1	14.0
OLED 소재	23.2	31.2	37.8	38.9	30.8	34.5	38.9	43.6	18.3	19.8	32.0	37.2
매출총이익	18.7	13.4	19.7	20.0	20.4	19.2	22.5	22.0	63.2	53.2	71.8	84.2
매출총이익률	23.1	21.5	26.9	26.0	25.7	24.2	26.3	24.1	27.2	27.5	24.5	25.1
판매비와관리비	7.4	7.9	9.7	9.6	9.6	9.5	11.1	11.9	53.7	31.0	34.6	42.1
판매비율	9.1	12.6	13.4	12.5	12.0	12.0	13.0	13.0	29.8	10.1	11.8	12.5
영업이익	11.3	5.5	10.0	10.4	10.9	9.7	11.4	10.1	9.5	22.2	37.2	42.1
영업이익률	14.0	8.8	13.6	13.5	13.7	12.2	13.3	11.1	4.1	11.5	12.7	12.5
세전이익	10.4	6.2	10.4	10.1	9.9	8.7	12.9	10.1	4.7	21.1	37.1	41.6
세전이익률	12.9	10.0	14.1	13.1	12.4	10.9	15.1	11.1	2.0	10.9	12.7	12.4
순이익	8.5	5.5	8.7	8.1	8.2	7.2	10.7	8.4	3.2	17.3	30.8	34.6
순이익률	10.5	8.9	11.9	10.5	10.3	9.1	12.5	9.2	1.4	9.0	10.5	10.3

주: 2016년 실적은 분할전(이녹스) 기준, 2017년부터 매출액은 이녹스첨단소재 사업부문의 분할전 매출액(2017년 1~5월)을 포함했고, 매출액 외에는 분할된 이녹스첨단소재 실적만 기재
 자료: 한국투자증권

기업개요 및 용어해설

이녹스첨단소재는 이녹스(존속회사)로부터 인적분할해 2017년 7월 10일 코스닥에 상장한 IT 소재업체임. 주요 제품은 FPCB용 소재(INNOFLEX, SMARTFLEX 부문), 반도체 패키징용 소재(INNOSEM 부문),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INNOLED 부문)로 매출비중은 2017년 기준 각각 66%, 13%, 21%. 주요 고객사는 FPCB 제조업체, 반도체 제조업체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업체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를 보유

재무상태표

(단위: 십억원)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유동자산	-	117	158	165	184
현금성자산	-	24	53	57	5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1	59	60	71
재고자산	-	28	41	37	46
비유동자산	-	106	137	154	168
투자자산	-	0	0	0	0
유형자산	-	100	132	147	157
무형자산	-	1	1	2	4
자산총계	-	223	296	319	352
유동부채	-	95	86	73	7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6	23	22	21
단기차입금및단기사채	-	53	53	43	43
유동성장기부채	-	0	0	0	0
비유동부채	-	3	54	55	55
사채	-	0	50	50	50
장기차입금및금융부채	-	0	0	0	0
부채총계	-	98	139	127	125
지배주주지분	-	125	156	192	227
자본금	-	4	4	5	5
자본잉여금	-	103	103	103	103
기타자본	-	0	0	0	0
이익잉여금	-	17	48	83	118
비지배주주지분	-	0	0	0	0
자본총계	-	125	156	192	227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원)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영업활동현금흐름	-	22	19	39	24
당기순이익	-	17	31	35	35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5	7	9	12
무형자산상각비	-	0	0	0	0
자산부채변동	-	(16)	(21)	(6)	(24)
기타	-	16	2	1	1
투자활동현금흐름	-	(12)	(40)	(25)	(24)
유형자산투자	-	(11)	(39)	(24)	(22)
유형자산매각	-	0	0	0	0
투자자산순증	-	0	0	0	0
무형자산순증	-	(0)	(1)	(1)	(2)
기타	-	(1)	0	0	0
재무활동현금흐름	-	(18)	50	(10)	0
자본의증가	-	1	(0)	0	0
차입금의순증	-	(19)	50	(10)	0
배당금지급	-	0	0	0	0
기타	-	0	0	0	0
기타현금흐름	-	(0)	0	0	0
현금의증가	-	(8)	29	4	(1)

주: K-IFRS (연결) 기준

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매출액	-	193	293	336	353
매출원가	-	140	222	252	265
매출총이익	-	53	72	84	89
판매관리비	-	31	35	42	47
영업이익	-	22	37	42	42
금융수익	-	1	2	2	2
이자수익	-	0	0	0	0
금융비용	-	2	3	2	2
이자비용	-	1	3	2	1
기타영업외손익	-	(1)	1	1	1
관계기업관련손익	-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	21	37	42	42
법인세비용	-	4	6	7	7
연결당기순이익	-	17	31	35	35
지배주주지분순이익	-	17	31	35	35
기타포괄이익	-	0	0	0	0
총포괄이익	-	17	31	35	35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	17	31	35	35
EBITDA	-	28	45	51	55

주요투자지표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주당지표(원)					
EPS	-	1,947	3,462	3,895	3,768
BPS	-	14,080	16,961	20,195	23,220
DPS	-	0	0	0	0
성장성(%, YoY)					
매출증가율	-	NM	51.9	14.5	5.2
영업이익증가율	-	NM	67.8	13.2	(0.4)
순이익증가율	-	NM	78.3	13.9	(0.4)
EPS증가율	-	NM	77.8	12.5	(3.3)
EBITDA증가율	-	NM	62.2	15.0	6.1
수익성(%)					
영업이익률	-	11.5	12.7	12.5	11.9
순이익률	-	9.0	10.5	10.5	9.9
EBITDA Margin	-	14.3	15.3	15.3	15.5
ROA	-	7.8	11.9	11.4	10.4
ROE	-	13.8	21.9	20.2	16.7
배당수익률	-	0.0	0.0	0.0	0.0
배당성향	-	0.0	0.0	0.0	0.0
안정성					
순차입금(십억원)	-	30	50	36	37
차입금/자본총계비율(%)	-	42.4	66.0	48.7	41.2
Valuation(X)					
PER	-	43.9	10.6	9.4	9.7
PBR	-	6.1	2.2	1.8	1.6
EV/EBITDA	-	27.9	8.5	7.1	6.7

항공

비중확대(유지)

2019년 위험과 기회

유가 하락에 따른 기대감으로 맞이하는 2019년

WTI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로 떨어졌다. 최근 두달간 37% 급락한 것으로 작년 평균 51달러보다도 16% 낮다. 지난 7일 OPEC+의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과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유가가 또 다시 급락하면서 항공사들의 수혜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한층 더 공고해지고 있다. 유류비는 항공사의 가장 큰 비용 항목으로 올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로 전년대비 4%p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최근 원유시장의 수급환경을 감안하면 내년 유가는 올해 대비 낮아지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유가가 10% 하락할 경우 항공 4개사의 영업비용은 5,800억원 절감되는 구조다.

종목	투자 의견	목표주가
대한항공	매수	39,000 원
제주항공	매수	46,000 원
진에어	매수	28,000 원
아시아나항공	중립	-

4분기 실적 부진할 전망으로 마지막까지 어려운 2018년

유가 하락은 시차를 두고 12월 중순 이후 실적부터 반영된다. 반면 4분기 이익은 작년 추석 황금연휴에 따른 기저 부담 이상으로 당초 우려보다 더 부진할 것이다. 항공 4개사의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5%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분기와 유사한 감소폭이다. 연결기준으로는 컨센서스를 39% 하회하는 부진이다. 사회전반적으로 소비심리가 둔화되는 가운데 여행객이 내야하는 유류할증료 부담이 높아지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씩씩이가 위축됐다. 이에 따라 11월 여행소비심리는 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국제선 공급을 크게 늘린 저비용항공사(LCC)들은 비수기에는 좌석을 채우는데 어려움이 커진 모습이다.

올해와 다를 2019년이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본업 수요

투자판단에서 단기 이익부진보다 내년 유가 약세에 따른 수혜가 더 중요하다. 다만 추세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수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11월 항공업종 주가 반등은 유가 하락에 따른 공급 증가와 운임 하락 가능성을 온전히 반영 못했기 때문이다. 먼저 유류비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LCC를 중심으로 공급경쟁은 다시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4분기 실적에서 드러났듯이 주요 1선 공항의 슬롯 포화로 최근 지방공항발 노선이 늘어나는 점은 비수기 수익성 유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유가 조정 이면에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어 추가적인 하락을 반가워할 수만은 없다. 무엇보다 국내 경제지표 역시 부진한 상황이다. 결국 내년 본업의 수급환경은 오히려 올해보다 더 낙관하기 힘들다. 따라서 국제선 여객운임은 줄어드는 유류할증료 이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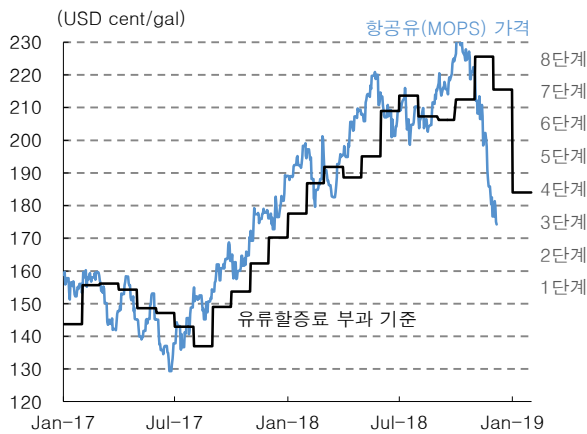
최고운

gowoon@truefriend.com

상위업체 선별 추천, 대한항공 안정적 투자매력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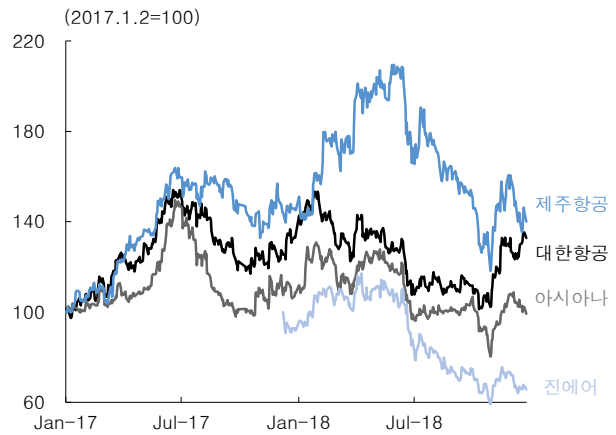
유가 하락으로 2019년 항공사들의 이익은 늘어나지만 수급 부담을 감안하면 일회적인 반등에 그칠 수 있다. 재점화되는 공급경쟁에도 수요를 선점함으로써 2020년까지 길게 봐도 수익성 개선이 가능한 업체를 선별해야 한다.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4분기 이익에 대해서도 숫자 자체를 우려하기보다 내용의 질적 측면에서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에 대해서도 상대적 방어가 가능한 상위업체에 주목할 것을 권유한다.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3분기에 이어 대한항공의 본업 실적이 가장 양호할 전망이다. 노선 포트폴리오의 효율화로 경쟁 심화나 외부 악재에 대한 영향이 가장 적다. 또한 2분기에는 작년, 4분기에는 올해 임금인상의 소급 적용분이 모두 반영된 만큼 2019년에는 기저효과가 클 것이다.

[그림 1] 유가 하락으로 수익성 개선의 발판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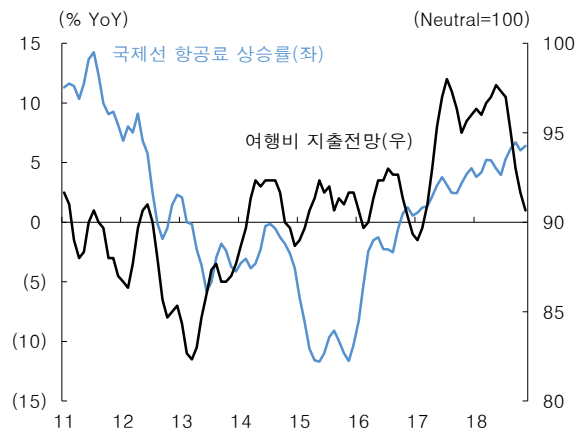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한국투자증권

[그림 2] 2019년 수급 부담 감안하면 주가는 정체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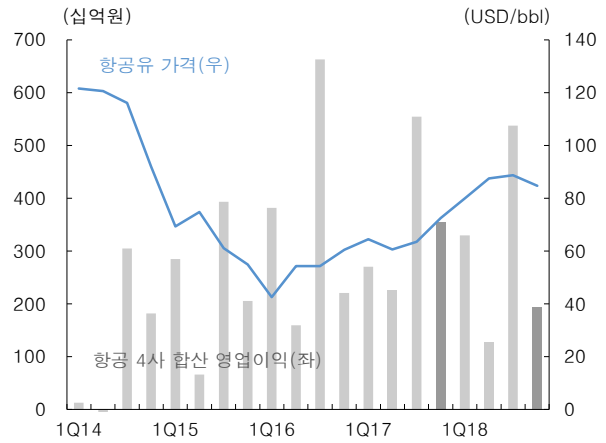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3] 11월 여행 지출전망 89p, 2년만에 최저치



주: 3개월 이동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올해 4분기 실적까지는 부진할 전망



주: 항공 4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기준
자료: 각 사, Datastream, 한국투자증권

〈표 1〉 커버리지 valuation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실적 및 Valuation										
종목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ROE (%)	EV/EBITDA (배)	DY (%)
대한항공 (003490)	투자의견	매수	2016A	11,732	1,121	(565)	(7,165)	22,352	NM	1.15	(27.2)	6.0	0.0
	목표주가(원)	39,000	2017A	12,092	940	792	8,639	37,824	3.9	0.89	29.4	6.4	0.7
	현재가 (12/24, 원)	33,400	2018F	13,077	763	(59)	(613)	36,961	(54.5)	0.90	(1.6)	6.6	0.7
	시가총액(십억원)	3,167	2019F	13,502	1,141	474	4,935	41,646	6.8	0.80	12.6	5.5	0.7
			2020F	13,981	1,292	583	6,077	47,473	5.5	0.70	13.6	5.0	0.7
제주항공 (089590)	투자의견	매수	2016A	748	59	53	2,045	10,351	12.3	2.42	21.1	4.6	2.0
	목표주가(원)	46,000	2017A	996	102	77	2,935	12,744	12.0	2.77	25.6	5.0	1.7
	현재가 (12/24, 원)	34,100	2018F	1,256	108	94	3,564	15,602	9.6	2.19	25.4	3.4	2.1
	시가총액(십억원)	898	2019F	1,496	147	117	4,436	19,229	7.7	1.77	25.7	2.1	2.3
			2020F	1,766	176	139	5,294	23,714	6.4	1.44	24.8	1.7	2.3
아시아나항공 (020560)	투자의견	중립	2016A	5,764	256	49	251	4,346	16.8	0.97	5.7	8.1	0.0
	목표주가(원)	-	2017A	6,227	276	252	1,227	5,607	3.7	0.81	24.7	7.2	0.0
	현재가 (12/24, 원)	4,145	2018F	6,879	231	(19)	(90)	5,517	(46.0)	0.75	(1.6)	7.2	0.0
	시가총액(십억원)	850	2019F	7,059	305	100	489	6,006	8.5	0.69	8.5	6.3	0.0
			2020F	7,627	345	136	663	6,669	6.3	0.62	10.5	5.9	0.0
진에어 (272450)	투자의견	매수	2016A	720	52	39	1,457	2,886	0.0	0.00	60.9	(2.1)	NM
	목표주가(원)	28,000	2017A	888	97	74	2,722	7,727	9.7	3.43	47.8	4.3	0.9
	현재가 (12/24, 원)	18,950	2018F	1,040	91	65	2,169	9,546	8.7	1.99	25.1	2.0	1.8
	시가총액(십억원)	568	2019F	1,191	121	93	3,084	12,230	6.1	1.55	28.3	1.3	2.1
			2020F	1,370	139	107	3,553	15,332	5.3	1.24	25.8	0.7	2.4

자료: 각 사, 한국투자증권

용어해설

- LCC(Low Cost Carrier): 단일기종 중심의 기재 운영, 기내서비스의 최소화, 보조공항 이용 등 기존의 대형항공사와 대조되는 비용절감 전략을 통해 낮은 운임의 항공권을 제공하는 저비용항공사
- FSC(Full Service Carrier): 일반 대형항공사로써 노선의 대부분을 정기편으로 운항. 수화물, 기내서비스 일체가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함.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해당
- ASK(Available Seat Kilometers): 판매 가능한 좌석수에 이동 거리를 곱한 값으로 항공산업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송공급 지표
- RPK(Revenue Passenger Kilometers): 유상 여객수에 이동 거리를 곱한 값으로 항공산업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송실적 지표
- L/F(Load factor): 공급 대비 이용률로 RPK에서 ASK를 나눈 탑승률 지표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미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증시 혼조국면 속 국내증시는 기관성 매기 유입으로 낙폭 제한되며 마감

- 미국 증시가 셋다운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 논란 등으로 추가 하락한데다 일본 증시도 약세 기조를 지속함에 따라 겹 하락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2.020p를 이탈하기도 했으나 연말 배당을 겨냥한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됨에 따라 낙폭을 소폭 축소해 전거래일 대비 27.00p 내린 2,028.01p로 장을 마감
- 특징적인 종목으로 링크제네시스는 사업다각화를 통한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에 초강세를 보였고 현진소재는 관리종목 탈피 가능성이 부각되며 초강세를 보임. 대유에이텍은 정부가 노후 경유차를 LPG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해준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으며 셀루메드는 무릎 반월상연골 부분 대체재인 BMG의 식약처 제조 품목허가를 승인 받았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함. 삼영엠텍은 남북경협에 따른 북한 수력발전 현대화 기대감에 강세를 보임. 반면, 엔터메이트는 유상증자 결정 이후 약세를 지속했으며 일양약품은 연구개발비 투입에 따라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에 약세를 보임. 크로바하이텍은 채권자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대주주 지분 감소 소식에 급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 용
인콘(083640) ▶1,475원 (+4.24%)	<p>자회사 JP모건 헬스케어 참가 소식에 연일 강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인 베리언트와 이뮤노메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참가할 예정 - 회사 관계자는 베리언트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나스닥 상장을 전제로 상장 전 투자유치(프리-IPO)관련 파트너링 미팅을 추진하고 미국, 유럽 등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라이선시아웃 관련 사전 미팅을 할 계획이라고 밝힘
디딤(217620) ▶2,925원 (+4.46%)	<p>가맹점 사업의 성장 기대감에 강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는 연안식당, 마포갈매기 등 다수의 외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 - 특히 상품경쟁력 제고와 프랜차이즈 노하우로 연안식당 점포가 올해 약 170개까지 확대될 전망으로 이익 기여도가 70억~8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에 강세
엔터 관련주	<p>실적 기대감에 강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년 상장사 실적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도 엔터 업계는 가수들의 신곡 발표와 유튜브 등 매출처 다변화 등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에 강세 -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 +3.60%), JYP Ent.(035900, +2.10%), 에스엠(041510, +2.08%)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 용
셀루메드(049180) ▶6,520 (상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릎 반월상연골 부분 대체재인 BMG의 식약처 제조 품목허가를 승인 받았다는 소식에 상한가

단기 유망종목: 파라다이스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파라다이스 (034230)	18,450 (-1.9)	18,800 (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인 VIP 드롭액 개선에 따른 성과 확대 본격화 전망 - 일본인뿐 아니라 동남아 등 기타 국적 신규 고객 발굴 효과로 수익 호전 예상 - 파라다이스시티 2차 시설 개장(엔터/레저 시설 확충)에 따른 실적 확대 전망
하나금융지주 (086790)	37,300 (-19.6)	46,400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자금 및 신용, 중소기업대출 증가에 힘입어 원화대출금의 지속적 증가 전망 - 대손율 0.07% 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가운데 4분기 NIM 반등을 앞두고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전망 - 예측되는 규제가 상당부분 발표되었고 추가적으로 나올 가계 및 부동산 관련 대책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주가에 반영된 상황에서 연말로 갈수록 배당 매력 부각 전망
한솔케미칼 (014680)	74,400 (-3.4)	77,000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 제품인 과산화수소 제품가격 인상과 권텀닷(QD)소재 수요 강세가 지속되며 실적 개선 전망 - 2019년 초 추가 3만톤 capa 가동을 준비하고 있어 과산화수소 사업의 실적개선 지속 전망 -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과산화수소 시장에서의 지배력 확장 전망
에스원 (012750)	103,000 (+22.2)	84,300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 편의점 확대 시 업무 지능화 관리 수요 증가에 따라 점포당 관리 수익 상승에 따른 수혜 전망 - 현재 10개의 무인주차장을 2019년까지 50개로 확대 운영할 전망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탄력근무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 등 근무형태 다변화에 따라 근태관리 솔루션을 도입하는 업체 증가에 따른 수혜 전망
와이솔 (122990)	14,500 (-17.4)	17,550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통신 서비스의 개화로 기존 2GHz 이하에 이용됐던 표면탄성필터(SAW)에 더해 고주파를 선별하는 벌크탄성파필터(BAW)가 추가되어 동사 필터 사업부문의 수혜 전망 - SK텔레콤의 IoT 전용망 모듈 납품자로 선정됨에 따라 커넥티드 수요 증가로 IoT모듈 사업부문의 수혜 및 모듈 신사업에서의 성장 기대
디지털대성 (068930)	4,630 (+2.8)	4,505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에서의 르네상스러닝 콘텐츠 독점 판매권 확보로 4분기부터 매출 본격화 전망 - 2012년 비상예유 인수 이후 현금성자산을 이용한 M&A를 통해 지속적인 실적 개선 기대 - 브랜드파워를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실적 성장으로 올해 최대 실적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하나금융지주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통성공급자(LP)입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하나금융지주 발행주식에 기타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롯데제과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8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롯데제과 (280360)	156,000 (+2.6)	152,000 (11/15)	1,737	85	45	1,077	14.3
- 수익성 위주 구조조정의 부작용이 순작용으로 전환되며 운전자본 감소 등 긍정적 효과 발생 - 해외 제과사 지분이 12월에 현물출자 되는 것으로 결정되며 성장성이 보강되며 지배구조 우려가 완화됨 - 빙과와 건과의 펀더멘털 개선에 따른 성장세 지속 전망							
멀티캠퍼스 (067280)	43,500 (+12.3)	38,750 (11/1)	241	19	15	2,625	14.8
- 삼성그룹의 교육서비스 전문 기업 -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사업 총괄 운영으로 19년 이후 실적 성장을 높일 것 - 기업들의 교육부문 위탁설계 확산 추세 및 영어말하기시험(OPIc)의 점유율 상승, 높은 배당성향도 긍정적							
삼양패키징 (122990)	16,950 (-13.3)	19,550 (8/17)	356	40	25	1,765	9.5
- 판매단가 인상과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영업마진의 점진적 개선 전망 - 19년 1분기까지 기저효과가 지속되며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전망 - 연이은 고부가 제품 증설 및 가동에 따라 고속 성장기 진입 전망							
현대백화점 (069960)	89,800 (-7.7)	97,300 (8/2)	1,880	406	287	12,705	7.4
- 명품 소비 증가로 기존점 매출액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12월 천호점 그랜드 오픈 및 11월 무역센터점 면세점 오픈 등에 따라 이익 모멘텀 확대 전망 - 본업 호조와 신규 사업으로 이익 모멘텀을 확보하였지만 여전히 저평가 상태로 밸류에이션 매력 상존							
신대양제지 (016590)	58,400 (-24.7)	77,600 (6/28)	688	103	76	18,962	3.2
-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65억원(+25.6% QoQ, +419% YoY)으로 전년 동기대비 5배가 넘는 이익 창출 예상 - 미국의 수출 지역인 중국과 동남 아시아 시장으로 한국 골판지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 상존 - 지배순이익이 peer그룹인 무림P&P(160억원) 대비 불과 5% 적지만 시가총액은 무림P&P의 절반에 불과한 염가 구간							
포스코강판 (058430)	20,250 (-10.4)	22,600 (5/30)	944	25	23	3,757	5.1
- 냉연업체들의 가격 인상에 따른 스프레드 반등 예상 - 생산라인 증설에 따라 3분기부터 컬러강판 생산능력 증가 전망 - 냉연 스프레드 사이클의 저점으로 판단되며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삼양패키징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업무를 수행한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한국시장 주요 지표

한국 주요지수	12/26(수) 종가	등락률(%)			
		1D	1W	1M	YTD
KOSPI	2,028.01	(1.31)	(2.45)	(2.64)	(17.81)
KOSPI200	260.98	(1.31)	(2.37)	(3.27)	(19.63)
대형주	1,951.93	(1.20)	(2.37)	(2.56)	(19.31)
중형주	2,379.86	(1.88)	(2.60)	(2.81)	(12.99)
소형주	1,827.38	(1.71)	(3.07)	(3.81)	(10.14)
KOSDAQ	665.74	(0.60)	(0.94)	(4.26)	(16.62)
KOSDAQ150	1,166.62	0.85	1.05	(2.28)	(17.48)

수급	12/26(수)	1D	1W	1M	YTD
거래량	KOSPI	312	319	390	393
(백만 주, 기간 평균)	KOSDAQ	682	658	612	795
거래대금	KOSPI	5,286	4,708	5,219	6,473
(십억 원, 기간 평균)	KOSDAQ	3,786	3,408	3,218	4,930

(단위: %, bp)

금리	12/26(수)	1D	1W	1M	YTD
국고채 3년물	1.85	0.40	5.50	(6.50)	(28.70)
국고채 5년물	1.90	0.00	1.70	(10.50)	(44.50)
국고채 10년물	1.99	1.50	(1.20)	(17.50)	(47.70)
회사채 3년(AAA-)	2.30	0.50	4.00	(8.30)	(25.00)
회사채 3년(BBB-)	8.27	0.50	4.00	(7.20)	(51.60)

(단위: 원, %)

외환	12/26(수)	1D	1W	1M	YTD
원/달러	1125.2	0.05	(0.16)	0.33	(5.14)
원/100엔	1019.0	0.13	(1.80)	(2.43)	(7.08)
원/유로	1283.4	0.13	(0.28)	(0.09)	(0.56)
원/위안	163.6	(0.07)	(0.34)	(0.57)	0.29

업종 지수	12/26(수)	등락률(%)			
		1D	1W	1M	YTD
KRX 업종 지수					
자동차	1,346.72	(2.30)	(4.53)	10.83	(22.60)
반도체	1,713.09	(1.88)	(2.11)	(10.43)	(38.46)
헬스케어	3,529.00	2.26	0.50	(1.88)	(8.22)
은행	780.72	(1.66)	(0.81)	(1.77)	(16.67)
에너지화학	2,260.15	(0.62)	(0.07)	(0.77)	(18.24)
철강	1,500.42	(0.97)	(2.76)	1.41	(26.91)
방송통신	993.05	(1.13)	(3.47)	(2.69)	(3.25)
건설	626.43	(2.26)	(3.59)	1.56	11.69
증권	600.83	(2.38)	(4.80)	(3.17)	(15.68)
기계장비	520.08	(3.28)	(5.02)	(5.57)	(2.83)
보험	1,601.99	(1.31)	0.17	(0.94)	(17.26)
운송	580.55	(1.53)	(2.91)	1.55	(0.07)
유틸리티	1,144.19	(1.34)	(2.27)	1.22	(2.84)

업종 지수	12/26(수)	등락률(%)			
		1D	1W	1M	YTD
KOSDAQ150					
기술주	1,393.98	0.89	1.64	(1.67)	(18.73)
소재	1,220.86	0.61	1.25	(10.05)	(22.26)
산업재	212.72	(0.14)	0.15	(5.22)	(32.01)
필수소비재	667.06	(0.63)	(1.98)	(3.27)	(34.71)
자유소비재	1,300.40	1.13	(1.49)	3.05	11.23
정보기술	485.95	(1.45)	(0.89)	(4.48)	(35.95)
생명기술	4,038.10	1.90	1.93	(0.63)	(14.28)
문화기술	2,463.55	0.28	4.66	(2.89)	10.17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분	개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타	
유가증권	매수	2,595	990	1,620	553	149	241	242	31	404	102
	매도	3,065	925	1,249	366	103	218	144	44	373	69
	순매수	(469)	65	371	186	46	23	98	(13)	30	33
	2018년 12월 누계	(1,498)	(495)	1,876	2,467	(70)	(47)	(143)	(91)	(213)	117
	2018년 누계	6,780	(6,198)	(2,188)	1,437	(1,169)	497	(1,218)	(431)	(231)	1,606
코스닥	매수	2,950	308	499	217	22	47	180	2	31	36
	매도	3,298	287	164	41	12	43	45	7	16	45
	순매수	(348)	21	335	175	10	4	136	(5)	14	(8)
	2018년 12월 누계	(606)	259	378	392	5	(35)	75	(18)	(54)	(31)
	2018년 누계	3,569	(573)	(777)	1,026	136	137	(1,333)	(168)	(618)	(2,220)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건강관리	1,672	조선	(191)	건강관리	861	은행	(616)
	반도체	738	소매(유통)	(95)	반도체	559	IT가전	(153)
	IT가전	297	상사, 자본재	(92)	IT하드웨어	261	통신서비스	(153)
	화학	215	건설, 건축관련	(86)	건설, 건축관련	143	필수소비재	(152)
	에너지	191	증권	(27)	운송	90	기계	(124)
종목	셀트리온	1,275	KODEX 레버리지	(367)	셀트리온	746	신한지주	(248)
	삼성전자	444	신한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123)	삼성전자	355	KB금융	(173)
	KODEX 200선물인버스2X	274	현대미포조선	(86)	삼성전기	270	SK텔레콤	(172)
	삼성SDI	265	효성	(73)	SK하이닉스	198	삼성SDI	(160)
	SK하이닉스	248	우리은행	(69)	현대미포조선	95	현대차	(104)
	삼성바이오로직스	225	SK	(67)	기아차	89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94)
	롯데케미칼	221	OCI	(64)	아모레퍼시픽	81	KT&G	(91)
	한진칼	175	NH투자증권	(63)	한국전력	75	KODEX 200	(90)
	KODEX 인버스	148	KODEX 코스피	(55)	삼성바이오로직스	66	넷마블	(89)
	SK이노베이션	147	현대건설	(55)	GS건설	66	삼성중공업	(71)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건강관리	1,806	디스플레이	(17)	건강관리	345	소프트웨어	(66)
	조선	314	유틸리티	(3)	호텔, 레저서비스	46	기계	(34)
	소프트웨어	241	증권	0	미디어, 교육	13	반도체	(33)
	미디어, 교육	235			IT하드웨어	12	디스플레이	(23)
	화학	184			에너지	12	화학	(15)
종목	셀트리온헬스케어	453	비피도	(80)	신라젠	144	셀트리온헬스케어	(50)
	바이로메드	359	서울반도체	(33)	바이로메드	132	포스코캠텍	(21)
	신라젠	339	스튜디오드래곤	(17)	비피도	92	대아티아이	(16)
	에이치엘비	322	케이엠더블유	(15)	아난티	60	SKC코오롱PI	(14)
	포스코캠텍	155	EDGC	(13)	셀트리온제약	40	플러비스	(13)
	아난티	104	이노메트리	(13)	메지온	33	파라다이스	(12)
	JYP Ent.	97	위메이드	(7)	네이처셀	16	미래컴퍼니	(12)
	와이지엔터테인먼트	79	동성화인텍	(6)	파멧신	14	엘비세미콘	(12)
	파멧신	74	베스파	(6)	에이비엘바이오	14	웹젠	(12)
	오스코텍	71	필링크	(6)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3	이엠텍	(11)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락률

KOSPI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삼성전자	228,941	38,350	(1.16)	(24.74)
SK하이닉스	43,753	60,100	(0.50)	(21.44)
셀트리온	28,604	228,000	8.31	3.12
현대차	25,640	120,000	(2.44)	(23.08)
LG화학	24,919	353,000	(1.26)	(12.84)
삼성바이오로직스	23,819	360,000	3.30	(2.96)
SK텔레콤	21,721	269,000	(2.54)	0.75
POSCO	21,317	244,500	(1.61)	(26.47)
한국전력	21,024	32,750	(1.06)	(14.15)
KB금융	19,986	47,800	(1.95)	(24.61)

KOSDAQ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셀트리온헬스케어	11,959	85,100	5.06	(21.64)
신라젠	5,132	73,500	3.23	(21.39)
CJ ENM	4,383	199,900	(2.01)	(13.46)
포스코캠텍	3,910	66,200	2.79	66.33
바이로메드	3,719	233,100	2.73	42.74
메디톡스	3,391	599,400	(0.43)	23.61
에이치엘비	3,095	79,000	5.47	104.40
플러비스	2,646	204,400	(1.73)	(17.45)
스튜디오드래곤	2,589	92,300	(2.43)	42.00
코오롱티슈진	2,502	41,000	(0.61)	(20.85)

Global Asset Monitor

글로벌 주식		(단위: %)					
구분	지역/국가	종가	1D	1W	1M	YTD	
지역	MSCI 세계	435.90	(0.41)	(5.38)	(8.29)	(15.03)	
	MSCI 선진국	1,795.28	(0.43)	(5.92)	(9.10)	(14.65)	
	MSCI 신흥국	950.27	(0.27)	(1.32)	(1.95)	(17.97)	
DM	S&P500	2,351.10	(2.71)	(7.65)	(10.69)	(12.06)	
	Dow Jones	21,792.20	(2.91)	(7.63)	(10.27)	(11.84)	
	Nasdaq	6,192.92	(2.21)	(8.30)	(10.75)	(10.29)	
	Russell 2000	1,266.93	(1.95)	(8.07)	(14.90)	(17.49)	
	영국 FTSE 100	6,685.99	(0.52)	(1.29)	(3.84)	(13.03)	
	프랑스 CAC	4,626.39	(1.45)	(3.61)	(6.48)	(12.92)	
	독일 DAX 30	10,633.82	0.00	(1.28)	(4.99)	(17.68)	
	스페인 IBEX	8,480.60	(0.89)	(3.77)	(4.89)	(15.56)	
	일본 니케이	19,327.06	0.89	(8.47)	(11.39)	(15.10)	
	홍콩 항셱	25,651.38	(0.40)	(1.67)	(1.07)	(14.26)	
	EM	코스피	2,028.01	(1.31)	(1.65)	(1.43)	(17.81)
		코스닥	665.74	(0.60)	0.92	(2.54)	(16.62)
		중국 상해종합	2,498.29	(0.26)	(2.01)	(3.01)	(24.46)
홍콩 H지수		10,062.94	(0.38)	(2.79)	(3.13)	(14.06)	
인도 Sensex		35,261.67	(0.59)	(2.99)	0.80	3.54	
베트남 VN		891.75	(0.69)	(2.99)	(3.18)	(9.40)	
인도네시아 JCI		6,125.27	(0.62)	0.59	1.98	(3.62)	
러시아 RTS		1,054.52	0.55	(4.10)	(2.73)	(8.65)	
브라질 Bovespa		85,697.15	0.50	(2.00)	(0.62)	12.17	
멕시코 Mexbol		41,380.11	(0.21)	2.58	0.57	(16.16)	
글로벌 업종	에너지	142.35	0.00	(4.79)	(10.40)	(18.41)	
	소재	167.07	0.08	(2.39)	(4.96)	(22.58)	
	산업재	222.51	0.09	(4.35)	(9.24)	(23.86)	
	경기소비재	212.52	0.11	(4.31)	(8.40)	(19.88)	
	필수소비재	267.36	0.06	(3.60)	(7.82)	(10.75)	
	헬스케어	498.78	0.04	(5.41)	(13.51)	(5.56)	
	금융	148.02	(0.02)	(3.80)	(8.91)	(18.68)	
	IT	326.00	(0.13)	(6.39)	(10.31)	(10.29)	
	통신서비스	153.58	(0.01)	(4.28)	(6.19)	(13.32)	
	유틸리티	162.44	0.04	(2.47)	(1.66)	(4.82)	

글로벌 환율		(단위: %)				
구분	지수/국가	종가	1D	1W	1M	YTD
지수	달러 인덱스	96.59	0.01	(0.53)	(0.50)	4.85
	무역가중 달러 인덱스	129.12	0.33	0.65	0.35	8.46
미주	브라질	3.90	(0.15)	(0.06)	0.71	(15.16)
	멕시코	19.96	(0.21)	0.79	3.30	(15.50)
아시아	한국	1,125.22	0.05	(0.16)	0.33	(5.14)
	일본	110.40	(0.08)	1.88	2.88	2.07
	중국	6.88	0.15	0.21	0.93	(5.38)
	대만	1.42	(0.27)	0.74	2.33	10.63
	인도	69.98	0.23	0.60	1.26	(8.73)
유럽	유로존	1.14	0.07	0.21	0.64	(5.04)
	영국	1.27	0.22	0.74	(0.97)	(5.99)
	러시아	68.83	(0.18)	(2.04)	(2.40)	(16.18)

주: 달러 대비

글로벌 채권		(단위: bp)				
지역	국가	종가	1D	1W	1M	YTD
미주	미국	2.72	(1.43)	(3.08)	(32.95)	31.86
	캐나다	1.98	0.10	(3.00)	(35.50)	(6.20)
	브라질(USD)	9.38	(4.90)	(27.20)	(68.10)	(87.80)
	멕시코	8.80	(1.10)	9.20	(43.60)	114.10
유럽	독일	0.25	0.00	0.60	(9.00)	(17.70)
	영국	1.26	0.00	(1.70)	(11.80)	7.30
	프랑스	0.70	0.00	(1.30)	(2.40)	(8.80)
	이탈리아	2.83	0.00	(10.70)	(57.60)	81.50
	러시아	5.05	(1.00)	(3.30)	(17.00)	117.80
아시아	한국	1.99	1.50	(1.20)	(17.50)	(47.70)
	일본	0.02	0.30	(1.30)	(6.80)	(2.60)
	중국	3.31	(1.00)	(5.10)	(10.30)	(59.20)
	호주	2.36	0.00	(2.20)	(27.10)	(26.70)
	인도	7.24	(4.60)	(3.60)	(48.60)	(8.50)

원자재		(단위: %, USD/oz, bu, MT)				
구분	지수/상품	종가	1D	1W	1M	YTD
지수	S&P 원자재 지수	367.29	(3.42)	(5.31)	(8.99)	(16.98)
	LMEX 지수	2,815.30	(0.54)	(2.09)	(2.99)	(17.65)
	CRB 지수	410.49	(0.08)	(0.94)	(1.15)	(5.05)
에너지	원유(WTI)	42.72	0.45	(7.61)	(17.26)	(29.29)
	원유(Brent)	50.18	(0.57)	(10.81)	(17.03)	(24.96)
	천연가스	3.52	1.47	(8.34)	(17.18)	19.13
금속	금	1,269.30	0.14	1.61	3.84	(3.06)
	은	14.70	0.81	0.42	3.22	(14.25)
	구리	5,955.50	(0.59)	(2.74)	(4.05)	(17.82)
	아연	2,474.00	(1.12)	(2.56)	(1.79)	(25.46)
	알루미늄	1,893.00	(0.84)	(2.52)	(2.87)	(16.53)
농산물	S&P 농산물 지수	287.38	0.13	(2.30)	0.70	1.85
	옥수수	377.75	(0.20)	(1.63)	1.96	(3.94)
	밀	516.50	0.49	(3.50)	1.82	4.71
	대두	897.00	(0.08)	(2.29)	0.25	(9.23)

변동성		(단위: %)				
구분	지수	종가	1D	1W	1M	YTD
미국	VIX	36.07	19.79	47.10	67.61	226.72
유럽	VSTOXX	20.40	(1.61)	2.93	7.51	50.97
한국	VKOSPI	21.74	11.54	20.91	17.64	80.27

한 눈에 보는 매크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7	18	19	20	21
유럽> 11월 CPI YoY (1.9%, 2.0%, 2.2%)	美> 11월 주택착공건수(천건) (1256, 1226, 1228)	美> 연준 FOMC 금리결정 (2.50%, 2.50%, 2.25%)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5.8%, n/a, 1.6%) 11월 기존주택매매(백만건) (5.32, 5.20, 5.22)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14, 215, 206) 11월 선행지수 (0.2%, 0.0%, 0.1%) 유럽> BOE 통화정책회의 (0.75%, 0.75%, 0.75%) 日> BOJ 통화정책회의 (-0.1%, -0.1%, -0.1%) 10월 전체산업 활동지수 MoM (1.9%, 2.0%, -0.9%)	美> 미국 연방정부 섯다운 기한일 3Q GDP 연간화 QoQ (3.4%, 3.5%, 3.5%) 11월 내구재주문 (0.8%, 2.0%, -4.3%) 11월 개인소득 (0.2%, 0.3%, 0.5%) 12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98.3, 97.5, 97.5) 유럽> 12월 소비자대지수 (-6.2, -4.3, -3.9) 日> 11월 전국 CPI YoY (0.8%, 0.8%, 1.4%)
24	25	26	27	28
	韓> 휴장(크리스마스) 美> 휴장(크리스마스)	유럽> 휴장(Boxing Day)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215, 214) 11월 신규주택매매(천건) (n/a, 566, 544) 1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 (n/a, 133.8, 135.7)	美> 11월 도매재고 MoM (n/a, 0.5%, 0.8%) 日> 11월 유효구인배율 (n/a, 1.63, 1.62) 11월 실업률 (n/a, 2.4%, 2.4%) 11월 광공업생산 MoM (n/a, -1.5%, 2.9%)
31	1	2	3	4
韓> 12월 CPI YoY (n/a, 1.8%, 2.0%)	韓> 휴장(New Year's Day) 12월 수출 YoY (n/a, 3.0%, 4.5%) 美> 휴장(New Year's Day)	美> 12월 마켓 제조업 PMI (n/a, n/a, 53.9) 유럽> 12월 마켓 제조업 PMI (n/a, 51.4, 51.4)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5.8%)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11월 건설지출 MoM (n/a, 0.4%, -0.1%) 유럽> 11월 M3 통화공급 MoM (n/a, 3.8%, 3.9%)	美> 연준 파월의장 인터뷰 12월 비농업고용자 변동(천명) (n/a, 185, 155) 12월 실업률 (n/a, 3.7%, 3.7%)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